

맞벌이 부부의 부모역할 공평성 가치관 및 아버지의 양육수행유능감과 양육수행

A Study on Fair Parental Role Model of Dual Earner Couples,
their Expectation for Parental Nursing Capability and Real Nursing Practices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조교수 한유진*

나사렛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김선애**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Education, Myongji Univ.

Assistant Professor : Han, Eu-Gene

Dept. of Child Studies, Nazarene Univ.

Associate Professor : Kim, Sun-Ae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variable factors by which fathers affect nursing practices. For this study 544 married couples were interviewed, which resulted in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wives have higher fairness than husbands in sharing their parental roles. Second, in some couples, there was a difference seen in the expectations of each parents nursing capability, but rarely were differences in real nursing practices actually observed. Third, all couples interviewed showed some disparity between their expectations of parental nursing capability and their real nursing practices, where the expectations for nursing capability were higher than the real nursing practices. Fourth, higher expectations for nursing capabilities from fathers result in them having better parental roles. Fifth, there is no correlation between parental nursing practices and social demographic variables. Lastly, the impacts on the parental nursing practices are ranked by relative importance as parental nursing capability, the wife's expectation for parental nursing capability and so on.

▲주요어(Key Words) : 맞벌이 부부(dual earner couples), 부모역할 공평성 가치관(fair parental role model), 양육수행유능감(parental nursing capability), 양육수행(real nursing practices)

I. 서론

남편의 도구적인 역할과 아내의 표현적인 역할로 대별

되는 가족 내에서의 고전적인 성에 의한 역할구분은 산업 사회의 분업화 패러다임과 그 이해관계를 함께 했으며, 우리사회의 전통 유교 철학과도 일맥상통하였다. 우리사회의 가정을 지켜온 전통가치관의 발현인 嚴父慈母란 말은 성에 의한 부모의 역할 구분을 단적으로 나타낸다. 전통적인 아버지는 자녀에 대해 이성적이며 공정한 판단 역할을 하

* 주저자 : 한유진 (E-mail : yjhan@mju.ac.kr)

** 교신저자 : 김선애 (E-mail : sakim@kornu.ac.kr)

는 엄격한 자녀의 훈육자로서 주로 도구적이고 수단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자녀들의 사회적 지위의 표본이 되어왔다(유영주, 1984). 반면, 전통적인 어머니는 정서적이고 애정적이며 양육적인 역할을 주로 맡아 부모역할을 상호보완 하였다.

그런데 현대사회의 경제 및 사회구조의 변화는 부모의 역할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경제구조가 변화되어 여성의 취업률이 높아졌고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였으며 가정 내 여성의 경제적인 기여도가 점차 커졌다. 반면 가족크기는 감소하고 가족 구조의 변화로 여성의 양육 활동을 지원해줄 친족관계망은 약화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의 반영과 남녀역할 평등의식의 증대가 수반되어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로 간주된 자녀양육을 아버지도 함께 수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자녀양육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의미 있는 발달과업(이정순, 2003)이라는 인식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아버지의 양육 수행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 비해 양육행동을 수행하는 시간의 양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질적으로 다르며(Geiger, 1996; Pruett, 2000),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받는 각기 다른 종류의 자극은 부모의 어느 한쪽에서 받는 자극에 비해 유아의 지적·사회적 발달에 대해 보다 효과적이다(박광균, 2000). 아버지의 양육수행은 아동의 성역할과 친사회적 행동(정현희·최경순, 1995), 사회적 능력 향상(김광웅·이인수, 1998; 최경순, 1993)과 사회적 적응 능력 향상(Coley, 1998; Coosey & Fondell, 1996)에 기여하였다. 또한 양육수행은 아버지 자신의 심리적 복지감과도 관련성이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만족할수록 심리적 복지감이 증가하였으며(조원지, 2000), 자녀와의 관계가 나빠서 스스로 아버지 역할을 실패했다고 평가하는 경우에 심리적 복지감이 저하되고 이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의 저하로 이어져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부작용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경혜·송지은, 2001).

이처럼 아버지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아버지의 역할에도 변화가 나타나났다. 과거 엄하고 표현하지 않는 아버지에서 친구처럼 대화하고 애정을 표현하는 자상한 아버지로의 역할 변화가 보고되고 있다(한경혜, 1999; 장재홍 등, 2000). 그러나 아버지 역할의 변화와 확대에도 불구하고 양육행동에 관한 부분은 부모가 공동의 협력자로서 수행해나가야 할 부분이 아니라 여전히 어머니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경향이 있다. 이는 맞벌이 가정의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더 높다는 연구(김기현·조복희, 2000)결과를 통해서도 추론할 수 있다. 한편 아버

지의 역할 또는 양육참여에 관한 일련의 선행연구(김희화, 2005; 이정순·조희숙, 2005) 들은 아버지의 양육행동의 범위를 넓게 다루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 역할에 전통전수, 정보제공 및 학업지원, 함께 놀기 등 다양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 여전히 아버지의 참여도가 낮은 기본적인 양육수행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전통적으로 어머니의 역할로 간주되어 아버지의 역할에서는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구체적인 양육수행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처럼 아버지 역할수행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으로 인해 최근 관련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수행 정도를 밝히는데 주된 관심을 두어왔다. 아버지의 연령에 따른 양육수행을 살펴본 결과 30대 아버지들은 40대, 50대 아버지들보다 자녀와 관련된 일상에 참여하는 경향이 더 높았으며(윤종희·이인숙, 1993), 40세 이하의 아버지는 그 이상 연령대의 아버지보다 전통전수의 역할은 더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김희화, 2005)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아버지들에서 양육수행에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양육수행은 교육수준(김경희, 2000; 김희화, 2005; 김광웅·이인수, 1998. 이완정 등 1997)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보고 되었다. 직업별로는 전문직일수록(김경희, 2000; 김희화, 2005),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김진, 1995)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는 상관이 없다는 연구(윤종희·이인숙, 1993)와 전문직, 사무직의 아버지들이 생산직의 아버지들보다 '함께하는 활동'은 많았으나, '발달적 지지'와 '돌보기 및 지도'에는 차이가 없다는 연구(이정순·조희숙, 2005)등 일관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선행연구는 아버지가 주체적으로 책임을 갖고 수행하는 양육역할이 아니라 어머니를 지지하는 간접적인 역할까지 양육역할에 포함하고 있어 아버지의 실제 양육역할이 어떻게 수행되는지는 파악하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 수행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아버지의 자녀양육행동에 대한 역할수행 평가로 정의하고 아버지의 연령, 학력, 직업 및 소득수준에 따른 양육수행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아버지의 양육수행은 이러한 사회인구학적 요인 이외에 부모의 의식체계와 밀접한 관계가 예상된다(이정순, 2003). 최근 맞벌이 부부가 크게 늘어나고 가족 내의 모든 역할 차원에 대해 부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부부간의 공평성' 문제가 관심 있는 주제로 등장하고 있다(이정우·강기연, 2001). 지난 수십 년은 가족 내에 뿌리 깊이 내재되어있는 가부장적 문화의

표현인 가족 내의 불합리성과 권력의 불평등 해결이 쟁점이 되어 왔다. Adams(1965)는 전통주의형, 신전통주의형, 평등주의형 등으로 부부역할 변화 경향을 분류하였으며, 80년대 이후 진행된 선행연구들은 공평성의 개념이 맞벌이 부부관계를 이해하는 데 아주 적절하다고 밝히고 있다(Gilbert, 1988; Rachlin, 1987).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공평성 연구의 역사가 극히 짧으며(조정문, 1995; 문숙재 등, 1997; 박정희, 1998; 차성란, 1998; 이정우·강기연, 2000),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부모역할에서의 공평성을 탐색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교환이론적 관점에서 출발한 공평성 이론은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려고 하지만 동시에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관계도 원치 않는다고 가정하는데 이는 불공평한 관계에서 이익을 얻는 쪽은 상대방에 대한 죄책감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불공평한 관계 속의 손해를 보는 쪽과 이익을 얻는 쪽 어느 쪽도 원하지 않으며 공평한 관계를 원한다고 본다(조정문, 1995). 이러한 공평성 이론의 특징으로 친구관계, 결혼관계와 같은 일차적이고 친밀한 관계 연구에 적용되며, 부부관계에서의 공평성은 결혼생활의 스트레스를 낮추고 결혼만족을 예측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이다(Geasher, 1990).

선행연구에 따르면 여전히 우리사회의 남성들은 자신을 경제적 부양자로 여성은 가사와 양육의 담당자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강란혜, 2000; 김현주, 2002), 자녀양육은 부부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기대는 남녀 모두에게서 높지만, 부부 공동의 책임이라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도 실제 수행에 있어서는 아내가 담당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보고(김경신·김미란, 1988)하고 있다. 부모역할 공평성 가치관은 부모역할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이며 현 시대의 사회적인 이데올로기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평한 부모역할에 대해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각각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으며 부모역할 공평성 가치관이 실제 양육수행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탐색할 필요성이 있다.

보편적이고 당위적인 가치관뿐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자녀양육 수행에 대한 아버지의 유능감 또한 양육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버지가 양육 역할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양육 참여 행동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난다(이성희·한은주, 1998; 허선자, 1992). 양육에 많이 참여하는 아버지들은 부모역할에 대해 자신감이 많고, 부모로서 자신을 유능한 존재라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Baruch & Barnett, 1988). 이를 종합해볼 때, 아버지가 양육수행에 대해 유능감을 갖고 있으면 실제 양육상황에서 자녀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어, 양육행동의 수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의 양육수행 유능감이 구체적으로 양육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젊은 세대일수록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직업역할에 비해 아버지 역할에 더 몰입하며(김소영·옥선화, 2000), 자녀의 발달단계에서 영유아 시기가 가장 양육 부담이 큰 시기이므로 이 연구는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부모의 역할 재정립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현 시점에서 아버지의 양육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탐색하고, 부부를 대상으로 조사함으로써 이러한 변인들이 어머니와 아버지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부모역할 공평성 가치관은 부부간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아버지의 양육수행유능감과 양육수행은 부부간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아버지의 양육수행유능감과 양육수행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4> 남편의 부모역할 공평성 가치관, 아버지의 양육수행유능감과 양육수행은 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 5> 남편의 아버지 양육수행은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 6> 남편의 아버지 양육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 거주하며, 취학 전 자녀(7세 이하)를 두고 있는 맞벌이 부부를 모집단으로 선정하여 부부 272쌍, 총 544명을 표집하였다. 연구대상의 연령은 남편의 경우 35~39세가 가장 많았고(124명, 45.9%), 부인의 경우 30~34세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146명, 53.7%). 평균 학력은 대학교 중퇴 혹은 졸업, 직업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가족의 한달 총소득은 300만원 가량, 자녀수는 평균 1.49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성 별	남 자		여 자		전 체
		272(50.0)		272(50.0)		
연령	29세 이하	15(5.6)		37(13.7)		52(9.5)
	30-34세	85(31.5)		146(53.7)		231(42.6)
	35-39세	124(45.9)		76(28.1)		200(37.0)
	40세 이상	46(17.0)		12(4.4)		58(10.7)
학력	고등학교중퇴·졸업	36(13.5)		62(23.2)		98(18.4)
	대학교중퇴·졸업	169(63.3)		165(61.8)		334(62.5)
	대학원이상	62(23.2)		40(15.0)		102(19.1)
직업	단순노동	1(4)		4(1.8)		5(1.0)
	반숙련직	1(4)		2(9)		4(6)
	숙련직	10(3.9)		3(1.3)		13(2.7)
	판매직	27(10.4)		23(10.3)		50(10.4)
	사무직	99(38.2)		108(48.4)		207(42.9)
	관리직	72(27.8)		42(18.8)		114(23.7)
	전문직	49(18.9)		41(18.4)		90(18.7)
총소득	100~149만원	8(3.0)		8(3.1)		16(3.0)
	150~199만원	22(8.3)		23(8.8)		45(8.6)
	200~299만원	62(23.3)		57(21.9)		119(22.6)
	300~499만원	125(47.0)		125(48.1)		250(47.5)
	500만원 이상	49(18.4)		47(18.1)		96(18.3)
자녀수	한 명	143(53.6)		143(53.6)		286(50.0)
	두 명	116(43.4)		116(43.4)		232(41.0)
	세 명	8(3.0)		8(3.0)		16(3.0)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공평한 부모역할 가치관을 측정하기 위해 김은형(1995)의 어머니의 역할관 척도 중 어머니와 아버지 양 편의 부모역할 가치관에 해당하는 문항을 선정하여 본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포괄적인 가치관에 중점을 둔 것으로 '아이들은 아빠와 엄마 모두의 사랑과 관심을 필요로 한다', '아빠도 아이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등의 총 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그렇지 않다'에서 '그렇다'의 4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해 응답토록 하였다. 본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한 내적합치도는 .89이다.

아버지의 양육수행유능감과 역할수행평가 양미경(1998)의 아버지의 자녀양육 생산성 척도와 백지은(1998)의 아버지의 양육행동 척도를 참조하여 본 연구자가 수정·제작 하였다. 아버지의 양육수행유능감은 부모역할 공평성 가치관과 달리 '아빠도 엄마만큼 아이를 잘 챙겨 먹일 수 있다'와 같이 실제적으로 아버지가 자녀양육행동을 얼마나 유능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를 측정하였으며, 아버지 양육수행은 동일한 항목에 대해 현실적인 수행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척도이다. 각각의 척도는 8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각 항목은 '그렇지 않다'에서 '그렇다'인 4점 리커트 척도를 통해 평정하였다. 각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아버지 양육수행유능감의 경우 .91로, 아버지

양육수행평가는 .90으로 나타나 척도의 신뢰성이 검증되었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예비조사는 2004년 4월에서 5월까지 맞벌이 부부의 개별 면담을 통해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본 조사 설문지를 구성하여, 2004년 6월 20일에서 7월 20일에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아동학을 전공하는 조사원을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원은 먼저 연구자가 서베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취학 전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조사원의 자료수집 과정이 진행되었다.

총 6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그 중 오기, 누락, 파손 등의 이유로 58부를 제외하고 최종 544부의 자료가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되었다. 모든 자료는 SPSS WINDOW 12.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가설검증을 위해 paired t-test, 상관관계 분석, 요인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부부간 부모역할 공평성 가치관 차이

부부의 자녀양육기능 담당에 있어 아버지도 어머니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치관을 측정하여

<표 2> 부부간 부모역할 공평성 가치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값
남편	264	3.65	.42	263	-6.407***
부인	264	3.83	.29		

***p<.001

<표 4> 부부간 아버지의 양육수행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값
남편	262	2.68	.65	261	-1.956n.s
부인	262	2.75	.67		

n.s. Not Significant

<표 3> 부부간 아버지의 양육수행유능감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값
남편	262	2.96	.60	261	-6.127***
부인	262	3.21	.60		

***p<.001

<표 5> 아버지 양육수행유능감과 양육수행간의 평균 차이

	아버지 양육수행 유능감	아버지 양육수행	유능감과 역할수행 차이	t값
남편	2.96	2.68	.28	9.185***
부인	3.21	2.75	.46	11.810***

***p<.001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2>는 paired t-test 결과로 부부간 부모역할 공평성 가치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남편의 경우에는 평균 3.65, 부인의 경우에는 3.83의 평균값을 보여, 부인의 공평부모 가치관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인이 남편보다는 아버지의 자녀양육 역할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사회의 남성들이 아직 양육의 주책임자는 여성이라는 가치관을 갖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한 것이다(강란혜, 2000; 김현주, 2002).

2. 부부간 아버지의 양육수행유능감과 양육수행

아버지의 자녀양육수행에 대한 남편과 부인의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paired t-test를 하여 다음 <표 3>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부인은 남편보다 '아빠도 엄마만큼' 아이를 위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간의 평균차이를 보면, 남편은 2.96이며, 부인은 3.21로 두 집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아버지의 양육수행유능감에 대한 평가는 남편보다 부인이 높다. 남편은 스스로 아버지의 양육수행유능감을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아버지의 양육수행에 대한 부부간 차이를 검증한 <표 4>의 결과를 보면, 부부간의 아버지의 양육수행에 대한 평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평균값을 보면, 남편 2.68, 부인 2.75로 남녀 모두 아버지의 역할수행에 대해서는 비슷한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양육수행유능감에 대해서는 부인이 남편보다 더 높은 기대를 갖고 있으나, 실제 행해지는

아버지의 양육수행에는 부부간의 지각이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3. 아버지의 양육수행유능감과 양육수행과의 관계

다음으로 아버지의 양육수행유능감과 실제적인 양육수행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paired t-test를 실시하여 <표 5>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5>는 아버지가 양육수행을 어느만큼 유능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와 실제로 아버지로서 행하는 양육수행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버지의 양육수행유능감이 양육수행보다 부부 모두 높은 평균값을 보이고 있다. 남편과 부인 모두 아버지의 양육수행유능감과 양육수행간의 차이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된다. 즉, 아버지의 양육수행유능감에 대한 기대는 높으나 상대적으로 아버지의 양육수행은 아직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본 연구결과는 우리 사회의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생각과 행동 간의 불일치를 보여준다.

특히 기대와 수행간의 격차는 남편에 비해 부인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5>에 의하면, 남편의 아버지 양육수행유능감과 아버지 양육수행 평균 차이는 .28인데 반해 부인이 나타내는 차이는 .46으로, 상대적으로 남편에 비해 부인이 아버지 양육에 대해 기대를 더 많이 갖고 있고 현실적으로 행해지는 수행은 더 낮게 평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남편들의 아버지로서의 양육수행이 부인이 원하는 아버지 양육수행유능감과 격차를 보여, 우리사회에서 아버지 역할에 대한 바람과 실제 사이의 간격이 아직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

<표 6> 남편의 부모역할 공평성 가치관 및 아버지 양육수행유능감과 아버지 양육수행

	본인(남편)			부인		
	부모역할 공평성 가치관(본인)	아버지 양육수행 유능감(본인)	아버지 양육수행 (본인)	부모역할 공평성 가치관(부인)	아버지 양육 수행유능감(부인)	아버지 양육수행 (부인)
남편의 아버지 양육수행	.283** (.000)	.693** (.000)	1	-.031 (.622)	.391** (.000)	.614** (.000)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

<표 7>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남편의 아버지 양육수행의 관계

	본인(남편)			부인			가구 총수입
	연령	학력	직업	연령	학력	직업	
남편의 아버지 양육수행	-.086 (.162)	-.031 (.612)	.102 (.099)	-.119 (.054)	-.069 (.266)	.090 (.148)	-.015 (.817)

는 아버지의 실제 역할 수행이 아버지 역할에 대한 지각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선행연구의 지적과 일치한다(김소영 · 옥선화, 2000).

4. 부모역할 공평성 가치관 및 아버지 양육수행유능감과 양육수행과의 관계

남편의 아버지 양육수행과 부모역할 공평성 가치관 및 아버지 양육수행유능감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산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남편이 평가한 아버지의 양육수행은 본인의 부모역할 공평성 가치관과 정적으로 관련되고 있으며($r=.283, p<.001$) 본인이 갖고 있는 아버지 양육수행유능감과도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을 알 수 있다($r=.693, p<.001$). 즉 본인이 부부간에 공평한 역할가치관을 갖고 있고, 아버지도 자녀양육수행을 유능하게 할 수 있다는 유능감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아버지의 역할수행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버지의 양육수행은 남편 스스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얼마만큼의 양육수행유능감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변인이 된다 할 수 있다.

부인의 가치관과 남편의 아버지로서의 양육수행유능감에 대한 기대가 남편의 양육수행과 관련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부인의 부모역할 공평성 가치관은 남편의 아버지 양육수행과 관련이 없으며, 부인이 생각하는 아버지의 양육수행유능감이 남편의 아버지로서의 양육수행과 정적인 관계를 보인다($r=.391, p<.001$) 이러한 결과는 부인의 부부역할에 대한 가치관이 어떠한지는 남편의 아버지 양

육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오로지 부인이 실제적으로 남성의 아버지 양육수행을 유능하게 생각할수록, 그리고 남편의 아버지 양육수행을 높이 평가할수록 남편이 평가하는 본인의 아버지 양육수행도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5.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부모역할 공평성 가치관, 아버지 양육수행유능감 및 양육수행

<표 7>은 남편이 평가한 아버지 양육수행과 남편과 부인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의 상관관계이다. 남편과 부인의 연령, 학력, 직업 및 부인의 연령, 학력, 직업과 가구의 한 달 평균총소득은 남편의 아버지 양육수행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남편의 아버지로서의 양육수행은 연령이나 학력수준, 직업적 지위 등에 의해 달라지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6. 아버지 양육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남편의 양육수행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해 남편과 부인 각각의 부모역할 공평성 가치관, 아버지 양육수행유능감 등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8>.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버지의 양육수행과 일차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므로 회귀식에서는 제외하였다.

총 4개의 변인이 투입되었으며, 전체 설명력은 51.5%인 것으로 확인되었다($F=67.732, p<.001$). 먼저 양육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면, 궁극적으로 남편의 양육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남편과 부인 각각의 아버지 양육수행유능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 본인의 부모역할 공평성 가치관은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양육수행과 일차적인 정적 관계를 보였으나, 변인들의 효과를 상호통제한 후 관계가 소멸되어 아버지의 양육수행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표 8> 남편이 평가한 남편의 아버지 양육수행과 관련변인 간의 회귀분석

		Beta	t	R	R ²	F
본인 (남편)	부모역할 공평성 가치관	-.002	-.042	.718	.515	67.732***
	아버지 양육수행유능감	.634	12.379***			
부인	부모역할 공평성 가치관	-.084	-1.809			
	아버지 양육수행유능감	.179	3.652***			

***p<.001

결과는 추상적인 가치관과 실제적인 행동수행은 서로 다른 영역의 문제일 수 있으며 가치관이 행동수행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이 두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본인(남편)의 아버지 양육수행유능감($\beta = .634, p < .001$), 부인의 아버지 양육수행유능감($\beta = .179, p < .001$) 순이다. 즉 양육수행은 양육수행의 주체가 되는 본인이 자신이 담당할 역할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기대를 하느냐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임을 본 연구 결과가 제시하고 있어, 막연한 가치관이 아닌 본인의 역할에 대한 실제적인 기대가 수행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부인의 아버지 양육수행유능감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남편의 양육수행을 지지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V. 결론 및 논의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하여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수행과 관련된 변인을 규명하고자 한 본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역할 공평성 가치관은 부부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부인이 남편보다 부모역할 공평성 가치관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젊은 부부들은 대체로 그들의 결혼을 공평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며(조정문, 1995), 맞벌이 남편의 공평성 인지점수가 부인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는 선행연구(이정우·강기연, 2001)와는 다소 다른 결과이다. 정서적 영역과 일상생활영역에서의 공평성을 살펴본 선행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어린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역할의 공평성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남편보다 부인의 부모역할 공평성 가치관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반적인 부부관계에서 공평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어린 자녀에 대한 공평한 부모역할에 대해서는 남편보다 부인이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맞벌

이를 통해 부양자 역할에서의 공평성을 추구하는 젊은 부부의 경우에도 자녀양육면에서는 공평한 부모역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맞벌이 남편에 비해 부인의 공평성 인지도가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이 더 크다는 연구(이정우·강기연, 2001)결과는 부부간의 부모역할 공평성 가치관의 불일치가 부부관계 및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므로 이는 후속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아버지 양육수행유능감에 대해 부인은 아버지가 어린자녀의 양육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지각하였고, 남편은 상대적으로 유능감을 낮게 지각하였다. 부인은 남편이 양육을 할 수 있는 유능감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므로 남편의 양육 수행을 기대하게 될 것이다. 반면, 남편은 자신 스스로 양육에 대한 유능감을 낮게 평가하므로 수행에 대한 자신감도 낮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실제 수행에 대한 평가는 남편과 부인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인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할 수 있는데 수행을 안하는 것이라고 지각할 수 있고, 남편은 능력이 안되어 못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아버지 양육수행유능감과 아버지 양육수행은 부부 모두에게서 불일치가 나타나, 아버지 양육수행유능감에 실제적인 양육수행이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이 부부 공동에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남편의 양육수행이 아내에 비해 낮게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김경신·김미란, 1988)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행이 낮게 나타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부모역할 공평성 가치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아버지의 양육자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생계담당자로서의 아버지의 책임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다(Lamb, 1986). 부양자로서의 역할을 우선적으로 수행하다 보니 아버지들은 자녀양육에 대한 유능감을 갖고 있어도 자녀와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고 양육기술을 향상시킬 시간과 기회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본인이 부부간에 공평한 역할가치관을 갖고 있고, 아버지도 자녀양육수행을 유능하게 할 수 있다는 유능감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아버지의 역할수행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아버지의 양육수행은 남편 스스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얼마만큼의 양육수행유능감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변인이 된다 할 수 있다. 반면, 부인의 경우 부모

역할 공평성 가치관은 남편의 아버지 양육수행과 관련이 없었으며, 부인이 생각하는 아버지의 양육수행유능감이 남편의 아버지로서의 양육수행과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인의 부부역할에 대한 가치관이 어떠한지는 남편의 아버지 양육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오로지 부인이 실제적으로 남편의 아버지 양육수행을 유능하게 생각할수록, 그리고 남편의 아버지 양육수행을 높이 평가할수록 남편이 평가하는 본인의 아버지 양육수행도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다섯째, 남편과 부인의 연령, 학력, 직업, 가구의 한달 평균 총소득은 남편이 평가한 아버지 양육수행과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관련이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수준과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한 연구(윤종희·이인숙, 1993) 및 직업과 자녀 돌보기 및 지도도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이정순·조희숙, 2005) 등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어머니를 지지하는 간접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양육행동의 수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아닌, 다른 요인과의 관련성이 존재함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여섯째, 아버지 양육수행과 관련변인의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버지 양육수행에는 본인(남편)의 아버지 양육수행유능감, 부인의 아버지 양육수행유능감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부가 아버지 양육수행유능감을 높게 인지할 때 실제적인 아버지 양육수행도 높았다. 가치관을 바꿔 실제적인 행동을 바꿀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부모역할에 대한 부모역할 공평성 가치관은 아버지의 양육수행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러나 늘상 생각과 태도와 행동 간의 괴리는 사람이 보이는 보편적인 행태 중의 하나이다.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곧 수행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행동수행은 행동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기대, 자신감, 유능감 등과 같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양육상황에 대한 유능감이 구체적인 행동수행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아버지의 수행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가치관이나 사회인구학적 변인보다는 실제적인 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스스로 자신의 일이라는 인식이 있을 때 비로소 수행이 증가될 것이다. 따라서 아버지들의 능동적인 양육수행을 증진하기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자녀양육지식과 방법, 의사소통 방법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부모교육 프로그램에는 아버지들이 학습한 내용을 실습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과정을 포함하여 직접 경험을 통해 자녀양육에 대한 유능감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접수일 : 2007년 01월 15일

□ 심사일 : 2007년 02월 09일

□ 심사완료일 : 2007년 03월 08일

【참 고 문 헌】

- 강란혜(2000). 아버지 역할과 자녀양육에 관한 연구동향(I)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8(7), 153-165.
- 김경신·김미란(1988). 아버지 역할에 대한 의식과 실행연구. **목포대학교 논문집**.
- 김경희(2000). 아버지의 심리적 자세 및 양육 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광웅·이인숙(1998).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정서적 능력. **아동학회지**, 19(2), 65-75.
- 김소영·옥선화(2000). 기혼 남성의 아버지역할과 직업역할 몰입 유형화와 생활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2), 125-139.
- 김은형(1995). 어머니의 역할관과 역할 갈등이 어머니의 격리 불안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진(1995). 아버지의 역할수행과 아동의 성취동기에 관한 연구. **전남대석사학위논문**.
- 김현주(2002). **부부 및 가정의 역할**. 서울: 학지사.
- 김희화(2005). 아버지의 양육참여 실태 및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아버지 양육참여의 영향. **아동학회지**, 26(5), 311-330.
- 문숙재·허경옥·홍윤정(1997). 부부간 가사노동분담과 공평성 인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5(2), 345-358.
- 박광균(2000). 아버지의 자녀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희(1998). 한국 부부간 공평성 인지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2), 107-122.
- 백지은(1998).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애착,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미경(1998). 아버지의 자녀양육 생산성과 3세 유아-아버지간

- 에착안정성과의 관계.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유영주(1984). *신가족관계학*. 서울 : 교문사.
- 윤종희 · 이인숙(1993). 부모의 성역할 유형, 부부간 권력유형과 아버지의 유아기 자녀양육 참여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1)**, 191-202.
- 이완정 · 현온강 · 최혜란(1997).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도와 자녀의 보육상황에 대한 보육인지도가 아버지의 보육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6(4)**, 63-77.
- 이성희 · 한은주(1998). 기혼남성의 아버지 역할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2)**, 23-39.
- 이정순(2003).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성역할관과 아동관이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7(4)**, 53-67.
- 이정순 · 조희숙(2005). 직업종류에 따른 아버지 양육참여와 직업역할, 가족역할과의 관련성 비교: 생산직, 사무직, 전문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10(3)**, 339-360.
- 이정우 · 강기연(2000). 도시주부의 공평성 인지와 의사결정 유형에 관한 연구. *합산적/총체적 측정방법의 적용. 대한가정학회지*, **38(5)**, 41-54.
- 장재홍 · 김태성 · 김현주 · 이호준(2000). 부모교육 프로그램 연구. *청소년 상담연구*, **86**.
- 정현희 · 최경순(1992). 아버지의 양육참여행동과 아동의 친사회적 도덕판단능력. *아동학회지*, **13(1)**, 38-51.
- 김기현 · 조복희(2000). 맞벌이 부부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관련변인 탐색. *아동학회지*, **21(4)**, 35-50.
- 정현희 · 최경순(1995). 아버지의 양육참여행동과 아동의 성역할, 정서반응,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6(1)**, 33-47.
- 조원지(2000). 아버지 역할 수행, 직업 역할 수행 및 직업 역할에 의한 아버지 역할 방해정도가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정문(1995). 결혼생활의 공평성 인지와 결혼만족. *한국사회학*, **29(3)**, 559-584.
- 차성란(1998). 부부의 성역할태도가 부부의 가사노동시간 및 노동공평성 인지에 미치는 상호작용적 영향력. *대한가정학회지*, **36(9)**, 139-152.
- 최경순(1993). 아버지 양육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4(2)**, 115-135.
- 송지은 · 한경혜(1994). 남성의 부모기로의 전이에 대한 보상 - 대가 지각의 유형, *대한가정학회*, **32(4)**, 73-83
- 한경혜(1999). 한국사회의 여성문화와 아버지 역할행동의 변화에 관한 연구. *성곡논총*, **30**, 177-228.
- 한경혜 · 송지은(2001). 중년남성의 건강에 가족 및 직업 특성이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13(1)**, 51-73.
- 허선자(1992). 아버지의 역할지각 및 양육참여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dams, J. S.(1965). *Inequity in Social Exchange*. i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 edited by L. Berkowitz. N.Y.: Academic Press.
- Barnett, R, & Baruch, G.(1987). Determinants of father's participation in family work.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9**, 29-40.
- Brehm(1992). The Therapeutic Reactance Scale: A Measure of Psychological Reactance.
- Coley, R(1988). Children's socialization experiences and functioning in single mother households; The importance of fathers and other men. *Child Development*, **69(1)**, 219-230.
- Coosey, E. C. & Fondell, M. M.(1996). Spending time with his kids; Effects of family structure on fathers' and children's liv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8(3)**, 693-707.
- Geasler, M. J. S.(1990). Marital Equity among dual-career couples: A longitudinal perspective.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Ph.D.
- Geiger, B.(1996). Fathers as Primary caregivers. Westport, C.T. Greenwood.
- Gilbert, L. A.(1998). *Sharing it all : the rewards and struggles of two career families*, Plenum Press. N.Y.: London.
- Rachlin, V. C.(1987). Fair vs equal role relations in dual-career and dual-earner families : Implications for family interventions. *Family Relations*, **36**, 187-192.
- Lamb, M. E.(1986). The father's Role: Applied perspectives. N.Y.: Wiley
- Pruett, K. D.(2000). Fatherneed: Why father care is as essential as mother care for your child. N.Y.: Free.

【부록】 척도의 구성타당도

<표 1> 부모역할 공평성 가치관 척도

문 항	요인 1
아이들은 아빠와 엄마 모두의 사랑과 관심을 필요로 한다.	.759
아빠도 아이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788
아빠는 아이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	.772
모성에만큼 부성애도 중요하다.	.775
아기들보기는 아빠와 엄마 모두의 일이다.	.758
아이는 아빠와 엄마에게서 똑같이 자상한 사랑과 따뜻함을 필요로 한다.	.833
아빠나 엄마는 아이에게 똑같이 중요하다.	.815
Eigenvalue(Pct of var)	4.326(61.804)

<표 2> 아버지 양육수행유능감 척도

문 항	요인 1
아빠도 엄마만큼 아이를 잘 챙겨 먹일 수 있다.	.747
아빠도 엄마만큼 아이 옷 입히기를 잘 할 수 있다.	.841
아빠도 엄마만큼 아이 목욕시키기를 잘 할 수 있다.	.787
아빠도 엄마만큼 아이를 잘 재우거나 깨울 수 있다.	.831
아빠도 엄마만큼 아이를 위해 책을 잘 읽어줄 수 있다.	.726
아빠도 엄마만큼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교사와 자녀에 관한 일로 상담할 수 있다.	.745
아빠도 엄마만큼 아이가 아플 때 잘 간호할 수 있다.	.763
아빠도 엄마만큼 아이의 세수나 칫솔질을 잘 해 줄 수 있다.	.779
Eigenvalue(Pct of var)	4.906(61.321)

<표 3> 아버지 양육수행 척도

문 항	요인 1
나는(남편은) 아내(나)만큼 아이를 잘 챙겨 먹인다.	.760
나는(남편은) 아내(나)만큼 아이 옷 입히기를 잘 한다.	.812
나는(남편은) 아내(나)만큼 아이 목욕시키기를 잘 한다.	.758
나는(남편은) 아내(나)만큼 아이를 잘 재우거나 깨운다.	.789
나는(남편은) 아내(나)만큼 아이를 위해 책을 읽어준다.	.723
나는(남편은) 아내(나)만큼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교사와 자녀에 관한 일로 상담한다.	.707
나는(남편은) 아내(나)만큼 아이가 아플 때 잘 간호한다.	.749
나는(남편은) 아내(나)만큼 아이의 세수나 칫솔질을 잘 해 준다.	.796
Eigenvalue(Pct of var)	4.650(58.127)